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학명	진원과학기술대학교	기숙사비	15,000TWD/한 학기
파견지역	대만 신베이시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input type="radio"/>) 분할납부(<input type="checkbox"/>)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2023.02.17.~06.24	기타비용	비행기, 생활비, 에어컨비, 보험비, 유심비 등

▣ 파견자 정보

성명	△△△	학과	△△△학과
성별	남	학년	3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23. 07. 13.

파견자 : △△△(서명)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중국에 관한 수업을 들어야만 전공 학점이 인정이 되어서 중국어 듣기 말하기, 중국 소설, 중국어 문법 등의 수업만을 들었습니다. 수강신청은 대만에서 직접 하는 방식이며 현지의 선생님이 도와주십니다.

베트남 학생들과 교환학생 수업을 듣기도 하고, 대만 현지 학생들과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은 모두 현지 대학의 대만 교수님들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한국과 많이 다른 떠들썩하고 수업을 듣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베트남 학생들은 강의 시간에 떠들어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수업을 듣는 몇몇 학생들에게 교수님들은 열정을 다해 강의를 하십니다.

현지인들과 듣는 수업은 교수님의 말씀이 빠르셔서 알아듣기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교환학생을 온 우리에게 많이 친절하시며 간체자를 배운 우리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따로 숙제를 내주시기도 합니다.

과제는 매주 있는 편이며 매주 쪽지시험도 있었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는 교수님의 배려로 시험을 따로 과제로 대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강의시간이 아침에 많아 강의시간에 아침식사를 사 와서 먹어도 됩니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1시간 정도 걸려 주변에 대만 유명 관광지인 시먼딩, 타이베이로 갈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강의실과 가까운 걸어서 3~5분 거리 안에 있으며 기숙사와 버스 정류장 사이에 오르막길이 있지만 걸어서 5, 1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추워서 겉옷을 많이 입고 다녔고 5월부터는 많이 습하고 더웠습니다. 햇빛도 센 편이고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

학교 안에 편의점 하나가 있고 학식도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통 닫는 편이라 우버이츠나 푸드판다를 통해서 배달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처에 걸어서 5, 10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20분 정도 걸어서 나오면 다이소 같은 매장과 음식점, 카페 등이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매우 많으며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15,000TWD	내부구조	4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통금 시간 23시, 음주 금지, 24시 이전 소등		
주요사항	교내 금연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기숙사는 1층이 책상이고 2층이 침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4인 1실입니다.
에어컨은 돈을 내고 사용해야합니다.
룸메는 모두 대만 사람들입니다.



처음 갈 때 베개, 매트리스, 이불 등을 직접 사비로 사야 합니다. 현지 담장 선생님께서 차로 짐 옮기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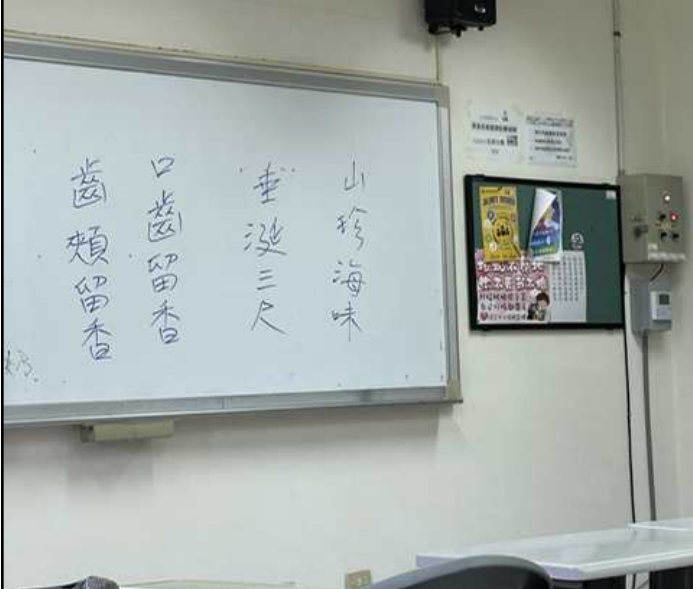
남자층은 화장실이 방 밖에 있습니다.
샤워실도 화장실과 같이 있습니다.
매일 청소하시는 분이 오셔서 청소를 해줍니다.

사 진 첨 부

사 진 첨 부

대학 현황 보고서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거의 모든 강의실의 책상과 의자가 일체형입니다.



학교 건물에 식당과 편의점이 있습니다.



기숙사에는 층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고,
동전을 넣어 돌릴 수 있습니다.
층에 사람이 많지만 세탁기와 건조기 수가 적어
베란다에 빨래를 널어놓는 학생도 많습니다.

교환학생 파견 수기

4개월 동안 진원과학기술대학교에 있으면서 현지의 사람들과 소통이 처음에는 어려웠고 번체자로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 힘들었지만, 살다 보니 중국어가 귀에 익숙해지고 글씨도 눈에 익기 시작하며 의미 있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의 배려와 현지 대만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대만 생활에 적응을 빠르게 할 수 있었고, 많은 추억이 쌓인 것 같습니다.

문화의 차이로 지내는 것에 있어 룸메들이 시끄럽다고 느껴져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지만 착한 룸메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의 나라에 대해 말해주는 시간도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수업이 끝나고 학교 근처에 풍경을 보면서 산책을 많이 하였고 저녁에는 근처 야시장에 가서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대중교통을 타고 시먼딩과 타이베이, 그리고 단수이 등을 많이 갔습니다.

나는 대만 음식이 입에 잘 맞는 편이지만 대만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배달로 한식이나 일식, 양식 등 다양하게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원과학기술대학교에 유학을 온 한국 친구들도 몇 명 친해져 같이 놀고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 학교에 왔을 때 같이 맛있는 음식점도 가고 심심할 때 탁구도 같이 쳤던 좋은 추억도 생겼습니다.

베트남 유학생들과 같이 듣는 수업은 적응하기 쉬웠지만, 현지인들이 듣는 교양수업은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교환학생을 위한 커리큘럼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 수강신청을 포함한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